

농진청, 스마트 관개기술 발전 전문가 협력

‘기후변화 대응 작물 국제 심포지엄’ 발전 방안 모색 노지 스마트팜 구현 노력...지속가능한 농업실현 앞장

농진청이 ‘스마트 관개기술’ 발전을 위해 전문가들과의 협력에 나섰다. 농진청은 2일 “이날 농업공학부에서 작물 수분스트레스 진단과 스마트 관개기술의 여러 나라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 스마트 관개기술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진청은 한국형 스마트 팜 기술 개발을 통해 온실, 축산 분야에 이어 노지 스마트팜 구현에 힘써왔다. 최근 토양수분 기반의 노지 작물 자동 관개시스템을 개발했으며 현재 사과, 복숭아를 대상으로 작물 생체정보 기반 스마트 관개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

스마트 관개기술’이라는 주제로 한국, 미국, 이스라엘 전문가들이 참석해 각 나라의 기술을 소개하고 적용 사례 등을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1부는 ‘작물 수분스트레스 진단기술’을 주제로 스마트 관개를 위한 무선 적외선 센서 개발 및 이용 기술, 작물 수분스트레스 정량화를 위한 정밀 온도 추출 비파괴 측정기술, 작물 스트레스의 정성 및 정량화를 위한 초분광 영상 기술 등을 발표했다. 2부는 ‘작물 스마트 관개기술’을 주제로 작물 수분스트레스 기반 스마트 관개

기술, 원예작물 정밀 적정 관개기술, 노지 작물 재배를 위한 스마트 관개기술 등 주제 발표를 실시했다. 끝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스마트 관개기술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종합토론의 시간이 마련됐다. 농진청 재해예방공학과 신승업 과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선진 관개기술 전문가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이번을 계기로 국내 스마트 관개기술이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전남도, 5월 전통주에 ‘사미인주’ 친환경 참쌀·전통누룩으로 빛은 프리미엄 막걸리

전남도는 2일 “5월을 대표하는남도 전통주로 장성 ‘찾아가는 양조장(禱禱산 녹수(대표 김진만))의 ‘사미인주’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미인주는 장성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과 직접 띄운 전통누룩으로 정성스럽게 빚어 저온 숙성을 거친 국내 1세대 프리미엄 막걸리다. 인공감미료를 첨가하지 않고 국내산 천연벌꿀과 사과 농축액을 더해 싱그러운 과일향과 산뜻한 풍미를 자랑한다. 송강 정철의 가사(歌詞) ‘사미인곡(慰美人曲)’을 모티브로 해 ‘남에 대한 그리움은 어떤 맛일까?’ 하는 상상을 막걸리의 맛과 향기로 표현했다. 사미인곡은 말 그대로 미인을 생각하는 노래로 여기서 미인이란 소중한 사람, 즉 정철이 충절을 가지고 모시던 선조를 뜻한다. (禱禱산녹수는 ‘과학으로 전통을 계승하는 양조장’이라는 슬로건답게 식품공학과 미생물을 전공한 김진만 대표이사(전남대학교 교수)가 중심이 돼 운영되고 있다. 지난날 장성의 자랑인 축령산

편백숲을 상징하는 ‘산소막걸리’를 출시해 SNS 등에서 호평을 받으며 단기간에 수도권 중심으로 1천여 매장에 입점하는 쾌거를 거뒀다. 김영진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사미인주는 소중한 사람과 함께 마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빛은 전통주”라며 “특히 가정의 달인 5월에 가장 소중한 사람인가족과 함께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미인주’ 소비자 판매 가격은 750ml /acl.8% 1병 기준 5천원이다. 전화(061-393-4141)나 전통주 전문쇼핑몰인 술팜닷컴(http://www.soolfarm.com)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김재정기자



광주농협, 2019 사업추진 결의대회



농협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일수)는 이남 행사는 3월 13일 실시된 제2회 전국 최근 지역본부 3층 회의실에서 광주시 관내 14개 지역농협 상임이사·전·상무와 함께 ‘2019년 지역농협 사업추진 및 건전결산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동시조합장선거로 인해 사업 추진이 늦어진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3월말 기준 사업 추진 진도분석을 통해 연간 사업추진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

기로 결의했다. 또한 2019년 사업 추진 방향 및 각 농협들의 현안을 공유하며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농업 발전에 의견을 나눴다. 김일수 본부장은 “건전결산을 통해 농업인 지원에 앞장서고 조합원 감소 및

고령 조합원의 증가로 인한 사업기반 약화에 적극 대응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 조합원 양성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수기자

도 육성 양파 신품종 ‘파링’ 첫 보급 나서

현장실증 평가회...국산 품종 육성·보급 기대 ↑

전남도에서 육성하고 있는 양파 신품종 ‘파링’이 첫 보급에 나섰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2일 “국내 양파 종자시장의 자급율을 높이고 로열티 절감을 위해 전남도에서 육성한 국산 신품종 ‘파링’ 현장실증 평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품종 ‘파링’은 현재 농가에서 재배 중인 수입 조생종을 대체할 수 있는 품종으로 제주도, 고흥, 무안 등 현지에서 연차 간 생육 및 수량을 평가해 2016년 농진청청정 작목육성 심의회를 통과했고 2017년 국립종자원 품종보호출원 됐다.

또한 지난해에는 화순군 대농씨드에 통상 실시를 추진해 현재는 0.5ha가 재배 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무안군과 대농씨드에 확대할 계획이다. 전남농기원이 공동으로 보급사업을 추진해 고흥과 무안 등에 2ha 이상 보급, 추진한다. 우리나라 양파 시장은 1조1천억원으로 단위 노지채소 중 가장 큰 규모 중 하나다. 양파의 전국 재배면적은 2만6천418ha이며 이 중 43%가 전남에서 재배하고 있어 전남 노지채소의 주요 작물이다. 양파의 생산비는 대부분 노동비와 종묘·비료비며 종자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산 품종의 육성과 보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김성준 연구사는 “우리나라 종자를 우리나라 농부가 재배하고 우리나라 국민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종자를 만들어 보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도농기원, 한우 사육기반 안정화 기술 개발 박차

전남도농업기술원이 한우 사육기반 안정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2일 “농기원 축산연구소는 한우 사육 안정화를 위해 능동적으로 사육두수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전남 양질 조사료 이용 미경산 한우(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의 단기비용 사료 급여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일반적으로 미경산 한우 비육기간이 35개월 소요되는데 이를 30개월

로 단축해 사료비를 절감하고 품질을 균일하게 하는 등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최근 맛 트렌드와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 충족을 위해 전남한우산학연협력단과 함께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미경산 한우 30두를 전남에서 생산된 이탈리아 라이그라스, 옥수수, 담근떡이, 총채벼와 옥수수, 단백피 등을 완전배

합사료 형태로 제조·급여해 시험 중이다. 전남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 정광욱 소장은 “미경산 한우 단기비용 프로그램 개발로 사육기간과 출하체중이 설정되고 이에 균일한 미경산 한우를 지속적으로 생산함에 따라 농가 소득 향상은 물론 수입육과의 경쟁력 확보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마늘·양파 생육후기 병해충 방제 당부

도농기원, 노균병·무름병 발생 우려...현장기술 지원 강화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2일 “최근 잦은 강우가 지속됨에 따라 마늘·양파 노균병과 무름병 발생이 예상돼 방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노균병은 15℃ 정도의 기온에서 식물체 표면 습도 95% 이상, 물방울 맺힘이 2시간 이상일 때 균 침입이 용이해져 발병하게 된다. 특히 양파 주산지역인 무안의 지난 한 주간 기상현황은 평균 기온 14℃, 평균 습도는 85%에 육박하고 비가 오는 날이 잦아 노균병과 무름병 발생이 우려된다. 노균병에 감염되면 잎이 연두색으로 변하고 아래로 처지는 현상과 함께 전체가 위축되는 증상을 보이면서 고사한다.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양파 구비대가 어려워 크기가 작게 되고 심할 경우에는 수확이 어렵게 된다. 무름병은 구비대기에 접어들면서 지제부로부터 병변이 시작되고 병에 걸리게 되면 부패해 냄새가 나며 잎이 마르고

쓰러짐 현상이 발생한다. 그리고 비가 올 때 수확하면 저장 중에도 발병할 수 있으니 수확 시기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 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가 온 뒤에 적용약제를 안전사용 기준에 맞춰 뿌려주고 수확 후에는 줄기나 잎을 소각하거나 땅에 묻어야 한다. 아울러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고온다습 조건에서 주로 발생하는 잎마름병 발생도 향후 예측해 예방을 즉시 시도 하는 등 대형 병반이 관찰되는 즉시 7일 간격으로 적용약제를 뿌려줘야 하며 배수가 잘 안 되는 논에서 재배하는 경우 병 감염에 더욱 취약해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전남농업기술원 김희열 기술보급과장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에 맞춰 마늘·양파 등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작물별 병해충 적기방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기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오피스텔 [급매]

- 상무지구 6층 (상가 겸 주택)
- (주거.사무실가능 / 방 2개 가능) 23평
- 전체 올수리, 내부 깨끗
- 보 500만 월 50만 (노후대비)
- 시세 1억3천
- 급매 8천400만 (융3천만)
- ☎ 062-382-5500
- 010-6670-9800

신축 원룸 매매

- 광산구 산정농협 뒷 1분 (코너)
- 1층 (상가)
- 2층(원룸5개) 3층(원룸5개)
- 4층 - 최고급 주택 (A.P.T 35평형)
- 즉시 입주가능 → 월수익 500만 (주인 거주시 400만)
- 매가 8억5천만 (융2억5천, 보 1억)
- 062-382-5500 010-6670-9800

경매 교육

- 경매 기초 실전반
- 실전 특수반 (유치권, 지분, 법지, 개발, 절반가격)
- 사무실 함께 쓰실분 (전문반) 주 1회 스터디 (기초 실전반, 특별반) → 매주 개강

법률경매

(주)대신경매

- 상무지구 7층 중 6층 (전용 60평)
 - ▶ 감정가 4억 → 최저가 1억4천6백
- 광산구 신기동 (원룸빌딩) (토 110평, 건 171평)
 - ▶ 감정가 8억1천7백 → 최저가 5억7천2백
- 상무지구 7층 중 7층 (전용 40평)
 - ▶ 감정가 2억4천 → 최저가 8천8백만
- 북구 용봉동 (다기구원룸) (토 80평, 건 165평)
 - ▶ 감정가 5억9천만 → 최저가 4억1천5백만
- 서구 농성동 (주유소) (토 246평, 건 278평)
 - ▶ 감정가 15억5천 → 최저가 15억5천

062-382-5500